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안 진 경(중앙대 박사) · 박 정 윤(중앙대 교수)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민여성의 국내거주율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적응과정 속에 발생하는 현상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인들의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그녀들의 적응과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역량강화요인을 발굴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도하고자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의 적응역량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국제결혼 후 5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한 뒤, 적응역량이 강화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만한 즉, 현재 부부만족도가 높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동일 집단 표집법에 의거하여 최종 10쌍을 선정하여 결혼이민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과정에서 나온 원자료들을 Strauss & Cobin의 방식을 통한 질문분석 및 유사개념 간의 추상화 및 범주화과정을 통해 최종 114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축코딩 결과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을 요약하면, 인과적 조건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두려움’, ‘국제결혼을 결심함’이, 맥락적 조건에는 ‘배타적인 편견에 부딪힘’, ‘가족갈등 위기’, ‘영원한 이방인의 느낌’이, 중재적 조건으로는 ‘내면화된 갈등극복의지’와 ‘가족의 지지’임이 드러났으며, 이 때 중심현상은 ‘가족지향가치관’과 ‘긍정적사고로 전환하기’로 드러났다. 이를 위한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은 ‘개방적가족체계 구성하기’, ‘문화정체감을 형성해 감’, ‘다양한 외부자원 활용하기’였으며, 그 결과 ‘푸른 희망의 싹을 틔움’과 ‘내 가족에 맞는 옷이 재단됨’이 결혼이민여성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본 연구는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역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한국사회적응 및 예비다문화가정으로서의 한국가정생활문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가족적 차원에서는 한국(시대)가족의 지지가 반드시 밑받침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비공식적·공식적 지원체제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